

전치사 $\delta\iota\alpha'$ 의 번역 문제(제1부)

김창락*

서양 집의 지붕 위 굴뚝은 거실의 벽난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집안에 들어오신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굴뚝 속의 빈 공간을 통과하신다. 전치사가 있는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비어 있는 어떤 공간을 통과한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 ‘...를 통과하여/통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를 사용하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굴뚝을 통하여(*through the chimney*)’ 집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물체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를 통하여/통과하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 방법, 기구 등을 표시하는 부사격 조사 ‘...로/으로’를 사용하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집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한다. 영어로는 ‘코/콧구멍을 통하여 숨을 쉬다(*to breathe through the nose/nostrils*)’로 표현하지만 우리말로는 ‘코/콧구멍으로 숨을 쉬다’이다. 영어식 표현으로 “도둑이 ‘뒷문을 통하여’(우리말 표현으로는: ‘뒷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이 ‘뒷문’이라는 통과 공간을 이용하여 막힘없이 들어왔음을 뜻한다. 서양 동화에는 “요정이 ‘지붕을 통하여’(또는: ‘벽을 통하여’) 공주가 잠든 방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에 서양의 전치사를 직역하여 “요정이 지붕을 통하여(또는: 벽을 통하여) 공주가 잠든 방에 들어왔다.”라고 번역해도 안 되며 우리말의 조사를 사용하여 “요정이 지붕으로(또는: 벽으로) 공주가 잠든 방에 들어왔다.”라고 번역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붕이나 벽은 요정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사용된 전치사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려면 “요정이 지붕을 뚫고(또는: 벽을 뚫고) 공주가 잠든 방에 들어왔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새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다.”라고 하면 새가 열려 있는 창문의 빈 공간으로 날아 들어왔음을 뜻하지만 “총탄이 창문을 뚫고 날아 들어왔다”라고 하면 총탄이 닫힌 창문의 유리창을 뚫고 날아 들어왔음을 뜻한다.

전치사 번역의 어려움은 그리스어 전치사에 꼭 그대로 대응하는 품사가 우리말에 없다는 사실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번역상의 더 큰 어려움은 원문에서 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 전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사실은 그리스어의 전치사에 의미와 기능상으로 거의 대응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영어 또는 독일어의 여러 번역들이 어느 한 구절에 사용된 전치사를 다른 종류의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의 번역본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일한 전치사를 곳에 따라 상이한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했다는 데서 입증된다.

이 글은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디아(διά)’가 본래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그 본래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1) διά는 어떤 물체의 뚫린 틈 또는 막히지 않은 공간을 통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 19:24) 그리스어 원문에는 διά가 사용되었고 영어와 독일어 성경은 예외 없이 through와 durc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예외 없이 부사격 조사 ‘로’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왜냐하면 바늘귀에는 뚫린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마 7:13) 여기서 문은 도착점이 아니고 통과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원문에 διά가 사용되었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은 διά에 대응하는 전치사 through와 durch를 사용하여 번역했다(NRSV, NAB, NIV, CB, LB, ZB 등등).¹⁾ 그러나 AV²⁾는 at를, NASB³⁾는 by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그렇게 하면 문은 통과 공간에서 출입의 한 지점으로 그 함의가 바뀌게 된다. 우리말 성경은 모두 ‘문으로’로 번역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요 10:1) 이것은 마 7:1과 꼭 같은 용례이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NAB, CEV, JB(E)⁴⁾만 διά를 through

1)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89); *The New American Bible* (Washington: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1970);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York: New York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73, 1978, 1987); *The Holy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5); *Die Bibel oder die ganz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nach der Uebersetzung Martin Luther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0);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des Neuen Testaments (Die Züricher Bibel)* (Zürich: Verlag der Zürcher Bibel, 1942, 1982).

2) *King James Version*, 1611.

3)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Chicago: Moody Press, 1977).

4) *The Jerusalem Bible*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4).

로, 나머지는 모두 by로 번역했다. 요 10:9와 14:6에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비유하고 누구나 다 이 ‘나’라는 문으로 양 우리에게 드나들어야 하고 이 ‘나’라는 길로 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이 두 경우 모두 $\delta\iota' \epsilon\mu\omicron\upsilon$ 이다. 여기에 사용된 ‘나’라는 대명사는 문과 길을 나타내는 은유이기 때문에 $\delta\iota\acute{\alpha}$ 라는 전치사와 결합되었다. AV는 이 둘을 by me로 번역했지만 NASB, NAB, NIV, JB는 through me로 번역했다. ZB와 LB은 이 둘을 durch mich로 번역했다. NRSV는 첫째 어구는 by me로, 둘째 어구는 through me로 번역했으며 CEV는 첫째 것은 through me로, 둘째 것은 부정어와 합하여 without me로 번역했다. 우리말로 이 두 경우의 어구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 우선 명심할 것은 $\delta\iota\acute{\alpha}$ 라는 전치사와 ‘나’라는 1인칭 2격 대명사로 지칭된 예수라는 인물과 결합할 경우에 무슨 의미가 생성되는지를 탐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나’라는 대명사는 각각 문과 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두 어구는 각각 ‘바로 이 문으로’, ‘바로 이 길로’를 뜻한다. 『개역』⁵⁾은 이 둘을 ‘나로 말미암아’(둘째 것은 부정어와 합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로 번역했다. (1) ‘...로 말미암다’는 ‘...가 까닭이나 인연으로 되다’이다. (2) ‘...를 말미암다’는 ‘...를 거치다/통하다’이다. ‘나로 말미암아’는 (a) ‘나 때문에’. (b) ‘내가 인연이 되어’/‘나와 관계되어’를 뜻하는데 (a)는 여기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a)의 의미를 나타내려 했다면 $\delta\iota\acute{\alpha}$ 4격을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말미암아’ 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로 번역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양 우리에게 들어가고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뜻이 통하는 말이 되지마는 원문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 『공동』⁶⁾은 이 두 어구를 각각 ‘나를 거쳐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으로, 『200』⁷⁾은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으로, 『표준』⁸⁾은 ‘나를 통하여’,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으로 번역했다. 여기에 사용된 ‘통하다’는 말은 ‘사이에 세워서 중개하게 하다’를 뜻하니까 ‘나를 통하여’는 ‘나를 중개자로 내세워서/삼아서’라는 뜻이다. 이러한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중개자로 내세워서 양 우리에게 들어야 하고 자기를 중개자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양 우리의 문인데 ‘나’인 이 문으로 드나들어야 하고 내가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데 ‘나’인 이 길로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5)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6)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7)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신약성서』 (서울: 분도출판사, 1981-).

8)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그들은...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마 2:12) 우리말에서 길의 왕래를 금지하는 것을 ‘통행금지’라고 한다. 사람이 길로 걸어가는 것은 개미가 길바닥을 기어가듯이 길바닥이라는 평면에 붙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 속을 빠져나가듯이 어떤 공간을 헤치며 지나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통행(通行)’으로 표현했다. 그리스어에서는 ‘길’은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이동하는 통행의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delta\iota\acute{\alpha}$ 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길을 3차원적인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평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au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했고 영어에서는 길을 왕래의 수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by를 사용했다.

그리스어에서는 길을 통행의 공간으로 이해하여 전치사 $\delta\iota\acute{\alpha}$ 의 목적어로 사용하듯이 어떤 장소도 그렇게 이해하여 $\delta\iota\acute{\alpha}$ 의 목적어로 사용한다. “악한 귀신이 쉼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마 12:43), “베드로는 사망을/사망에 두루 다니다가”(행 9:32), “예수께서 사람들이 성전 뜰을 통행로 삼아 통행하면서 기물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막 11:16) 영어 성경은 거의 모두 through the temple courts/area로 올바르게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성전 안으로’ 『개역』, ‘성전 뜰을 질러’ 『공동』, ‘성전 뜰을 가로질러’ 『표준』, ‘성전을 가로질러’ 『200』로 불완전하게 번역했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지 지름길로 다니는 보행 방법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다. “또 누구든지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뜰을 통로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새번역』⁹⁾이 우리말 번역 가운데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볼 수 있다. “또 성전 뜰을 통행로 삼아/통행하면서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빛’을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공간으로 비유해서 $\delta\iota\acute{\alpha}$ 의 목적어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계 21:24) 영어 성경의 대다수(NASB, NIV, NRSV, NAB, CEV)는 전치사 by를 사용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by light라는 부사구는 걸어 다니는 행위의 빛이 수단으로 이해되게 했고 AV는 전치사 in을 사용했기 때문에 in light라는 부사구는 걸어 다니는 동작의 수단으로 이해되면서도 또한 공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또 전치사 $\delta\iota\acute{\alpha}$ 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온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고전 10:1) 『공동』과 『200』은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로 번역했다. 원문에 굳이 전치사 $\delta\iota\acute{\alpha}$ 가 사용된 것은 단순히 건넌의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넌의 정황, 즉 물 속을 통과하여 건너왔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다. 히 11:29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홍해를 통과했다

9) 『새번역 신약전서』(서울: 대한성서공회, 1967).

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른 땅과 홍해에 전치사 $\delta\iota\acute{\alpha}$ 를 붙였다. 우리말 성경은 어느 것도 원문에 담긴 ‘통과’의 함의를 살려서 번역하지 못했다. NASB, ZB, LB는 양 쪽에 다 through 또는 durch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나머지는 ‘홍해’에는 모두 through를 사용했지만 ‘마른 땅’에는 by(AV, CEV), on(NIV)을 사용하거나 아예 전치사 없이 번역했다.(NRSV, NAB, NEB, JB)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마 12:1) 원문에는 ‘밀밭’이라는 표현도, ‘사이’라는 표현도 없다. 원문에는 $\delta\iota\acute{\alpha}$ 의 목적어로 ‘곡식/농작물’이라는 낱말의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이 ‘곡식/농작물’은 문맥에서 판단하면 밀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밀 작물들’은 어느 한 마지기 밭에 있는 밀 작물들을 가리키는가, 여러 밭에 있는 밀 작물들을 가리키는가? 예수는 도대체 어디를 지나가셨는가? 전치사 $\delta\iota\acute{\alpha}$ 는 틈새로 통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밀 농작물들’이 첫째 것을 가리킨다면 예수는 어느 한 밀밭의 **밀 작물들을 뚫고/헤치고** 지나가셨다는 것을 뜻한다. ‘밀 농작물들’이 둘째 것을 가리킨다면 예수는 밀밭과 밀밭 사이의 틈새로 통과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through the corn(AV), through a field of grain(NAB), durch ein Kornfeld(LB), durch die Saaten(ZB) 등의 번역은 첫 번째 의미로 이해하게 하지만 through grainfields로 번역한 나머지 대다수 성서들은 두 번째 의미를 채택했다.

두 장소의 사이를 통과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운데/사이’라는 명사를 첨가하기도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delta\iota\acute{\alpha}$ μέσον Σαμαρείας καὶ Γαλιλαίας) 지나가시게 되었다.”(눅 17:11)

2) $\delta\iota\acute{\alpha}$ 의 목적어가 막힌 물체인 경우에는 그 물체를 ‘뚫고/부수고/헤치고/찢고’ 통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delta\iota\acute{\alpha}$ τῶν κεράμων)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눅 5:19) 『200』은 ‘기와를 헤치고’로 번역했다. 그러나 기와를 벗기거나 헤치기만 하면 침상을 내릴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은 ‘기와를 벗겨 구멍을 내고’로, 『표준』은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로 번역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달아 내려서 피신시킨 사건을 기술할 때에,(행 9:25) 사도행전 기자는 ‘성벽을 통과하여($\delta\iota\acute{\alpha}$ τοῦ τείχους)’라는 어구를 사용했다. 성벽을 통과하여 광주리를 바깥으로 내리려면 성벽에 광주리

가 통과할 만한 틈새를 찾아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벽을 뚫거나 부수어서 광주리를 통과시켜야 한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문의 *διὰ*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리에 어울리는 다른 전치사로 대체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다. 『Amplified Bible』¹⁰⁾(NRSV는 난외주에 원문대로는 *through the wall*이라고 표시함.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RV도 이렇게 번역했음)은 유일하게 이 어구를 원문의 표현 그대로 *through the [city's] wall*로 번역했다. 이것은 ‘성벽을 뚫고/부수고’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광주리가 빠져 나갈 틈새가 없기 때문이다. NRSV, NASB, NIV, NAB는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로, ZB도 이와 꼭 마찬가지로 *durch eine Oeffnung in der Mauer*로 번역했다. 이들은 성벽에 광주리가 빠져나갈 틈새가 있었으리라고 상상했다. 나머지 성서들은 *διὰ* 대신에 사리에 맞도록 다른 전치사를 고안해냈다. CEV는 *over the city wall*, JB(E)는 *from the wall*로, LB와 JBD는 *über die Mauer*로, AV와 NEB는 *by the wall*로 번역했다. 우리말 성경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개역』은 ‘성벽에서’로, 『공동』은 ‘성 밖으로’로, 『200』은 ‘성벽을 따라’로, 『표준』은 ‘성 바깥으로’로 번역했다. 바울 자신은 이 동일한 사건을 고후 11:33에서 합리적으로 기술했다.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διὰ θυρίδος* … *διὰ τοῦ τείχους*)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원문의 이 어구의 문자적 의미는 ‘창문으로 성벽을 통과시켜/빠져나가게 하여’이다. 원문에는 *διὰ*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원문대로 이 두 *διὰ*를 다 살려서 번역한 성경은 ZB 뿐이다(*durch ein Fenster* … *durch die Stadtmauer*). NRSV는 둘째 *διὰ*를 전치사 *in*으로 바꾸어 둘째 어구를 형용사구로 만들어서 *window*를 수식하게 만들었다(*through a window in the wall*). 그러나 NRSV는 난외주에 *in the wall*이 원문에는 *through the wall*로 표현되어 있다고 제시해 놓았다. NRSV처럼 둘째 어구를 형용사구로 만들어서 번역한 성경들은 NEB, NASB, NIV, NAB, JB, CEV, Amp, 『200』, 『표준』이다. 나머지 번역들은 두 어구를 부사구로 하되 둘 중에 어느 한 쪽의 *διὰ*를 다른 의미의 전치사로 바꾸었다. 즉 AV는 *through a window*…*by the wall*로, 『개역』과 『새번역』과 『공동』은 AV의 번역 모범을 따라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로, JB는 *durch eine Luke über die Mauer*로, Wilckens는 *durch ein Fenster über die Mauer*로, LB는 *zum Fenster hinaus durch die Mauer*로 번역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유대교의 제사 의식이 폐기되었음을 상징한다. 이 휘장은 어느 휘장을 가리키는가? 성전 안

10) *The Amplified Bible, Containing the Amplified Old Testament and the Amplified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87).

에는 제사장의 뜰과 성소를 가리는 첫째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둘째 휘장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유대교의 성전 제사가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진술한다. 그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둘째 휘장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 휘장을 찢어 젖히거나 걷어치우거나 뚫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성소’를 뜻하는 낱말과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판단할 때에 그가 지성소와 지성소 앞의 휘장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διὰ τοῦ καταπετάσματος*)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히 10:19-20) 모든 외국어 성경은 예외 없이 원문의 *διὰ*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through* 또는 *durc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휘장을 뚫고’보다는 ‘휘장을 찢어 젖히고’가 더 좋은 표현일 것이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번역한 『개역』과 ‘휘장인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로 번역한 『200』은 원문의 의미를 굴절시켰다. 『공동』과 『표준』의 ‘휘장을 뚫고’라는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말로는 ‘휘장을 찢어 젖히고’가 더 좋은 표현일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성소를 가리는 휘장과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통과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되었는지를 기술한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침투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διὰ τῆς μείζονος καὶ τελειότερας σκηνῆς*)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히 9:11-12) 이 장막은 그리스도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통로도 아니요 그 길을 차단하는 장애물도 아니다. 건축물의 구조상 지성소 앞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이 장막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그리스어의 *διὰ*, 영어의 *through*, 독일어의 *durch*는 문, 창문, 구멍 등 본래부터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통행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장막은 지성소로 인도하는 통행로가 아니기 때

문에 ‘장막을 통하여/장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어구를 through를 사용하여 번역한 NASB, NIV, NRSV, NAB, JB 그리고 durch를 사용하여 번역한 ZB, LB, JB는 장막을 통로로 이용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200』이 영어 또는 독일어 성경의 번역에 의거하여 어구를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로 번역한 데서 실증된다. AV는 이 어구를 전치사 by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장막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이용되는 통로로 오해되도록 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개역』의 번역은 근거나 원인을 뜻하는 것이라면 오역의 극치일 것이며 경유를 뜻하는 것이라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라고 표현해야만 했다. NEB와 CEV는 δι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장막을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도착하신 종착점으로 번역해 놓았다. 『공동』은 NEB의 오역을 그대로 본받아 옮겨 놓았다.

총탄이 나를 통해 지나갔다면 총탄이 내 육체를 뚫고 지나간 것이다. 총탄이 군중의 한가운데를 통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말은 총탄이 군중의 한가운데 있는 빈틈을 요리조리 찾아다니면서 군중 속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할 리가 없다. 총탄이 군중의 한가운데를 통해 지나갔다면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총탄의 관통상을 입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διὰ μέσου αὐτῶν) 떠나가셨다.”(눅 4:30) 영어와 독일어 성경은 예외 없이 모두 전치사 through 또는 durch를 사용하여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공동』, 『200』, 『표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로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들 가운데 마치 예수가 통과할 수 있는 틈새가 미리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유유히 지나가신 듯한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군중은 예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헤치고/밀치고/뚫고 빠져나가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노아 홍수 때에 물은 인간을 파멸하는 힘이였다. 그것은 노아의 여덟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방주를 이용하여 물의 위협을 물리쳤던 것이다. 벧전 3:20은 노아의 식구 여덟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δι’ ὕδατος라는 부사구를 첨가했다. 이 경우에 물이 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뜻할 리가 없다. 또 물에서/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했다면 그것에 적합한 전치사(예를 들면 ἐκ 또는 ἀπό)를 사용했을 터이지 διὰ를 사용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δι’ ὕδατος는 무슨 의미인가? AV는 Eight souls were saved by water로 번역함으로써 마치 물이 구원의 수단 또는 힘이였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했다. NIV, NRSV, NAB, JB가 by water를 through water로 바꾸었지만 똑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다. NEB는 …were brought to safety

through the water로, NASB는 …were brought safely through the water로, CEV는 …were brought safely through the flood로 번역했다. 이렇게 하면 through the water 또는 through the flood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 또는 정황을 나타내는 상황의 부사구로 해석될 수 있다. 『개역』의 ‘물로 말미암아’와 『표준』의 ‘물에서’라는 번역도 원문의 의미를 살렸다고 볼 수 없다. 『200』의 ‘물을 통과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번역은 원문의 구문을 완전히 곡해한 것이다. ‘물에 빠지지 않고’라고 번역한 『공동』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근사하게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delta\iota\alpha$ 는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어구는 ‘물(의 위협)을 물리치고’ 또는 ‘물을 헤치고 나와’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3) $\delta\iota\alpha$ 는 어느 장소를 경유하거나 통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경유를 뜻하는지 통과를 뜻하는지는 문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통과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을 뜻하고 경유는 의도적으로 어떤 곳을 들러서 지나가는 것, 거처 지나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말 성경은 막 7:31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번역했다.

- 『개역』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 『공동』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들르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 『200』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갈릴래아 호수로,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로 가셨다.”
- 『새번역』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돌아오시는 길에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돌아오셨습니다.”
- 『표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여행의 최종 도착점이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문법적인 문제와 지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두로가 이 여행의 출발지이고 시돈이 경유지 또는 통과지이고 갈릴리 바다가 도착지였음은 명백하다. 문제는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alpha\nu\tau\acute{\alpha}\ \mu\acute{\epsilon}\sigma\sigma\omicron\nu\ \tau\omicron\nu\nu\ \delta\omicron\rho\acute{\iota}\omega\nu\ \Delta\epsilon\kappa\alpha\pi\acute{o}\lambda\epsilon\omega\varsigma$)’라는 어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이 이 여행의 통과 지역이 되기도 하고 도착 지역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200』, NIV, CEV는 도착 지점을 둘로 보았다. 즉 갈릴리 바다와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이다. 이 해

석의 난점은 예수께서 원 출발지인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오시는 것으로 여행의 일단락을 맺지 않고 이어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NASB, NRSV, NAB, ZB, LB는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라는 어구를 ‘갈릴리 바다로’라는 어구에 대한 동격적 서술구로 취급했다. 그 나머지 성서들은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라는 부사구를 이 통과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 해석의 최대 약점은 데가볼리 지역의 가운데가 지리상으로 시돈과 갈릴리 바다 사이의 여로의 도중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이 해석의 장점은 예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등지의 이방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그의 원래의 활동 지역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다는 하나의 이방 지역 여행에 관한 보도로 종결짓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데가볼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διὰ Σιδῶνος*라는 부사구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느냐를 규명하는 일이다. 즉 시돈을 그냥 지나가셨다(=통과)는 것을 뜻하는가, 시돈을 들러서 가셨다(=경유)는 것을 뜻하는가? 어떤 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여행 경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통과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어떤 곳을 들르거나 거친다는 것은 지나는 길에 그 곳을 일부러 잠깐 방문한다는 것을 뜻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에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표현하는 전치사가 없다. 우리말에 이러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 문장을 번역할 때에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시돈은 두로와 갈릴리 바다를 잇는 여로에 놓여 있는 지점이 아니고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은 직통길이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는 길이다. 시돈은 여정에서 단순히 지나가는 지점이 아니라 일부러 들러서 가야 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어구는 ‘시돈을 들러서/거쳐서’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다음 문장에서는 *διά*-구가 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이 일을 마치고...**여러분에게 들렀다가**(*δι’ ὑμῶν*)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롬 15:28) 다음 예문의 *διά*-구는 그 곳을 거쳐서 간다는 뜻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διὰ Μακεδονίας*)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행 20:3)

직통 길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 두 지역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행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단순히 통과해 가야 하는 지역일 따름이다.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διὰ τῆς Σαμαρείας*) 가셔야만 했다.”(요 4:4) 『공동』, 『200』, 『표준』이 ‘사마리아를 거쳐서’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아마도 ‘거치다’라는 우리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야’로 수정한 『개역개정』의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

예수와 그 일행은 변화산 밑의 한 마을에서 출발하여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고 길을 떠나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방을 통과하셔야 했다. 막 9:30은 출발 당시의 정황을 기술한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δι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런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그냥 통과하려던 그들의 원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33절). 이 διὰ-부사구를 『개역』은 ‘갈릴리 가운데로’로, 『공동』과 『200』은 동사와 합하여 ‘갈릴라아를 지나가셨다’로, 『표준』은 ‘갈릴리를 가로질러’로 번역했다. 여기에 사용된 διὰ는 ‘통하여 지나가다’라는 의미의 ‘통과하여’를 뜻한다. ‘통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장소의 내부를 지나가되 어디네 머무르거나 누구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국어사전은 대체로 ‘지나가다’라는 낱말을 ‘통과하다’라는 낱말의 동의어로 취급하지만 정확한 개념규정이라 할 수 없다. 또 어떤 사전은 ‘지나가다’를 ‘거치어 가다’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지나가다’와 ‘통과하다’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기차가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다/지나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의어이다. 그러나 어떤 ‘건물을 통과한다’라는 말과 어떤 ‘건물을 지나간다’라는 말은 동의어일 수 없다. ‘통과한다’는 말은 그 건물의 내부를 지나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지나간다’는 말은 그 건물의 앞이나 곁이나 멀리서 지나간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갈릴라아를 지나갔다’라는 번역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갈릴리 가운데로’는 갈릴리의 주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내부를 통과해 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서는 적절한 번역이지만 ‘가운데’라는 낱말이 ‘중앙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표준』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는 최단 직통 행로를 이용해서 지나간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4) διὰ가 ‘전체/모두’를 뜻하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두루’ 또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관철되었음을 뜻한다.

“이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δι’ ὅλης τῆς χώρας) 퍼져 나갔다.” (행 13:49) 『공동』, 『개역』, 『200』은 ‘전체’라는 명사의 의미를 ‘두루’라는 부사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살려냈다. 『표준』은 그것을 형용사로 바꾸어서 ‘그 온 지방에’로 번역했다. 이와 같이 형용사를 이용하여 번역한(through the whole region; durch das ganze Land) 성서는 NASB, NIV, NAB, JB, ZB, LB이며 부사로 바꾸어

서 번역한(*far and wide through the region; all over that region*) 성서는 NEB와 CEV이다. AV와 NRSV는 형용사도 사용하지 않고 부사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원문의 전치사를 *through*로 번역하지 않고 *throughout*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살려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διὰ πάντων*)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행 9:32) 베드로는 룻다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에 다녔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πάντων*(=all)이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느냐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AV, NASB, NIV, NAB, NEB, CEV, JB, LB와 우리말 성경들은 이것을 지역으로 보았고 NRSV, Amp, ZB, LB는 성도들로 보았다. 이 모든 번역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첫째로 전치사의 목적어 앞에 ‘모든’, ‘여러’ 따위의 형용사를 붙인 것(*through all those parts/through every region/one place after another/from one place to place/making a general tour/allenthalben/bei allen*), 둘째로 ‘여기저기로’를 뜻하는 부사를 첨가한 것(*traveled about the country*), 셋째로 형용사와 부사를 이중으로 붙인 것(**사방에 두루**/*here and there among all believers/here and there among them all*), 넷째로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throughout*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것(*throughout all quarters*)이다.

5) *διὰ*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구를 목적으로 취하면 그만한 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διὰ τριῶν ἡμερῶν*)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마 26:61)

“**며칠이 지나서**(*δι’ ἡμερῶν*)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막 2:1)

“나는, 내 겨레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δι’ ἔτων δὲ πλείονων*) 고국에 돌아왔습니다.”(행 24:17)

“그 다음에 **십사 년이 지나서**(*διὰ δεκατεσσάρων ἔτων*),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갈 2:1)

6) 또 *διὰ*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구를 목적으로 취할 때에 그만한 기간 동안을 뜻하기도 한다.

“그는 **사십일 동안**(*δι’ ἡμερῶν τεσσαράκοντα*)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행 1:3)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δι’ ὅλης νυκτός)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눅 5:5)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새**(διὰ νυκτός) 안디바드라로 데려갔다.”(행 23:31) 이 부사구는 군인들이 바울을 안디바드라로 데려간 일이 밤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이 지속되는 전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밤에’라는 우리말 성경(『개역』, 『새번역』, 『200』, 『표준』)의 번역은 밤을 하나의 시점(時點)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영어나 독일어 성경은 명백하게 ‘기간’을 뜻하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NESV, NIV, Amp는 *during the night*로, ZB는 *während der Nacht*로 번역했다. 그리고 *by night*(AV, NASB, NAB, NEB, JB)와 *bei der Nacht*(LB, JB)라는 번역의 *by*와 *bei*는 *during*과 *während*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

“그는 **밤낮**(διὰ παντός νυκτός καὶ ἡμέρας)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막 5:5) 이것은 밤이나 낮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밤 동안과 낮 동안 줄곧’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διὰ παντός는 ‘늘/언제나/끊임없이’를 뜻한다. παντός 다음에 ‘시간’이나 ‘날’이라는 명사를 보충하여 이해하면 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διὰ παντός) 보고 있다.”(마 18:10) “그들의 등이 언제나(διὰ παντός)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롬 11:10)

다음 두 경우의 διὰ-부사구는 밤의 전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밤의 어느 시점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천사가 옥문을 열고 바울을 끌어낸 것이나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밤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지 밤새 내내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밤에**(διὰ νυκτός)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행 15:19) “여기서 **밤에**(διὰ νυκτός)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행 16:9) NRSV, NIV, NAB, Amp, ZB는 이 두 곳을 모두 *during*과 *während*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번역했다.

7) διὰ는 시련이나 난관을 견디어 내거나 극복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διὰ πολλῶν θλίψεων) 합니다.”(행 14:22) 이 부사구는 ‘많은 환난을 겪고 나서’, ‘많은 환난을 이겨내고서’,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나서’, ‘많은 환난[의 기간]을 견디어내고

서'를 뜻한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ὡς διὰ πυρός) 할 것입니다.”(고전 3:13-15) 여기서는 불 속이라는 난관을 헤치고/뚫고/빠져 나오는 것을 뜻한다.

8) 예수의 생애를 기술하는 맥락에서 때때로 ‘물’은 그의 ‘세례’를, ‘피’는 그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 이 물 또는 피를 목적어로 취하는 διὰ-어구는 ‘세례를 받고서’ 또는 ‘죽음을 겪고서/당하고서’를 뜻한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δι’ ὕδατος καὶ αἵματος) 오신 분이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일 5:6)(『표준』) 이 구절을 『공동』은 완전히 의역해서 그 본래적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수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AV, NASB, NIV, NRSV는 이 어구를 by water and blood로 번역했다. 이렇게 되면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이용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거나 그가 가져오신 휴대품이었다는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NEB, LB, 『개역』은 각각 with water and blood, mit Wasser und Blut, ‘물과 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 경우에도 ‘물’과 ‘피’가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오해가 생기게 된다. NAB, ZB, JB는 각각 through water and blood, durch Wasser und Blut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through와 durch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사람에게만 원문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는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있다. 『200』은 ‘물과 피를 통하여’로 번역했는데 ‘물’과 ‘피’가 예수의 오심에 무슨 기능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CEV는 이 구절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는 장면을 기술한 것으로 오해하고 “Water and blood came out from the side of Jesus Christ.”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오역이다.

지금까지(1-8) 나온 예문들은 주로 왕래를 뜻하는 동사가 어떤 물체를 통로처럼 통과하거나 어떤 장애물을 헤치고/제치고/뚫고 지나가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다음에 나오는 예문들에서는 διὰ의 목적어로 등장하는 사물이나 인물은 그 문장의 사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중립적인 세력 또는 절대적 세력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격체가 διὰ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행위의 대행자 또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내며, 사물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편을, 또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적용되는 근거를 뜻한다. 1-8의

예문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술하는 데 반해서 다음 예문들은 어떤 사실의 배후에 놓여 있는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추론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9)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비록 시각적으로 보지 않았을 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일의 원동자(Urheber)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성서 기자들의 눈에 행위의 주체로 나타난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대행자인 셈이다. 하나님이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고 대행자는 διά-구로 표현된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δι’ αὐτοῦ)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행 2:22) 『개역』은 성경 전체에서 ‘통하여’라는 낱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구를 ‘나사렛 예수로’라고 번역했다. 이 표현으로 독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행위의 대행자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δι’ αὐτῶν)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행 15:12) 『개역』은 ‘자기들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δι’ ἡμῶν)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후 2:1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시는 것입니다.”(고후 5:20) 『개역』은 ‘우리로’, 『200』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과 『표준』은 ‘우리를 시켜’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δι’ αὐτοῦ)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요 3:17)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δι’ ἐμοῦ)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딤후 4:17) 『공동』은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하면 ‘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 행위의 대행자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나 계시나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신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행자라기보다는 차라리 매개자 또는 전달자

에 가깝다고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평화를 전하셨습니다.”(행 10:36)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롬 1:1).

하나님이 원행위자임을 수동태 구문의 행위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르시기를**(τὸ ῥηθῆν ὑπὸ κυρίου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 λέγοντος)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마 1:22) 『표준』, 『공동』, 『200』은 ‘예언자를 시켜서’로, 『개역』은 ‘선지자로’로 번역했다.

마 2:17, 23은 마 1:22와 내용상으로 똑같은 구문인데 다만 ὑπὸ κυρίου라는 어구만 생략되었을 따름이다. 수동태 표현을 능동태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 2:17)

성령도 직접적인 시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διὰ의 목적어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성령이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인지 매개자/중개자/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어떤 도구 작용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δι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고전 2:10)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행 1:2)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신 **자기의 영을 통하여**(διὰ … αὐτοῦ πνεύματος)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롬 8:11) 『개역』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표준』은 ‘자기의 영으로’, 『공동』은 ‘당신의 성령을 시켜’, 『200』은 ‘당신 영을 통하여’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엡 3:16) 『개역』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은 ‘성령으로’, 『200』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로 번역했다.

수동태로 표현된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행위자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행위자이심을 전제하지 않으면 대행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성령을 행위의 완전한 주어로 오해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고전 12:8) 『개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과 『표준』은 ‘성령을 통하여’, 『공동』은 ‘성령에게서’로 번역했다.

롬 5:5를 『표준』은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고 원행위자이신 하나님을 끌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했고 『200』은 수동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선사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했다. 이와 달리 『공동』은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하여 성령을 완전한 행위의 주체가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δι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도 성령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분간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고후 5:18) 『개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과 『표준』은 ‘그리스도를 내세워’로 번역했다.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볼 때에는 ‘...를 내세워서’로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은...**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엡 1:6) 『개역』만 제외하고 『공동』, 『200』,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로 번역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롬 2:16) 『공동』과 『200』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준』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로 번역했다. AV만 by Jesus Christ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모두 through Jesus Christ로 번역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정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골 1:20) 『개역』, 『200』, 『표준』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동』은 ‘그리스도를 내세워’로 번역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어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원문의 암호 문자를 다른 암호 문자로 바꾸어 놓은 셈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 1:2) 『개역』은 ‘아들로’, 『200』과 『표준』은 ‘아들을 통하여’, 『공동』은 ‘아들을 시켜’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서는...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엡 1:5)

히 13:21의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는 어구의 의미는 ‘이루다’라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이해된다. 『200』과 『표준』은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밧니다).”(『200』),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밧니다.”(『표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개역』라고 번역했다. 이와 달리 『공동』은 ‘이루다/행하다’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로 보았기 때문에 διὰ-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로 번역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신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밧니다.”(『공동』) AV, NASB, NIV, NRSV는 콤마를 복잡하게 찍어서 διὰ-구가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NRB, NAB, JB(E)와 독일어 번역들은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번역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벧전 4:11)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수동태 동사의 주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개역』과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공동』과 『200』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로 번역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히 1:2)

“하나님께서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딤후 3:6) 예수 그리스도는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 『공동』과 『200』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로, 『개역』과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번역했다.

살전 4:14의 διὰ τοῦ Ἰησοῦ가 ‘잠든 사람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인지 ‘데리고 오실 것이다’를 수식하는 부사구인지 결정하기 힘들다. 형용사구로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표준』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공동』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로, 『200』은 ‘예수를 통하여 죽은 사람들’로 번역했다. AV, NASB, NIV, NEB, CEV, JB(E), JBD 형용사구로, NRSV, NAB, ZB, LB는 부사구로 보고 through Jesus, durch Jesus로 번역했다. 『200』이 형용사구로 분석하면서도 ‘예수를 통하여’로 번역한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

인격적 존재 대신에 어떤 인물의 ‘입’, ‘손’, ‘이름’ 따위가 διὰ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의 ‘입’, ‘손’,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의 주인공을 대행자로 내세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διὰ στόματος τῶν ἁγίων ἄπ’ αἰῶνος αὐτοῦ προφητῶν) 말씀하신대로”(행 3:21) 『개역』은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표준』, 『공동』, 『200』은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빌려’로 번역했다. 우리말 번역은 모두 입이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달리 NIV, NRSV, CEV, JB(E)는 through his holy prophets 또는 by his holy prophets로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자기의 대행자로 내세웠다는 것을 뜻한다. 행 3:18도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διὰ τῶν χειρῶν Παύλου)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행 19:11 『표준』) 『개역』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200』은 하느님께서서는 바울로써 비범한 이적들을 행하셨다.” 『공동』은 “하느님께서서는 바울로써 시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로 번역했다. 『공동』과 마찬가지로 NIV, NRSV, NEB는 through Paul로 번역했고 CEV는 “God gave Paul the power to work great miracles.”로 번역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διὰ τοῦ ὀνόματος … Ἰησοῦ)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행 4:30) 이 기도는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이지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여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도 “through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by the name of Jesus”로 번역했다.

10) διὰ의 목적어가 인격체인 경우에 행위를 일으키는 근원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 어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이다. 특히 행위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수동태 문장이나 자동사 문장에서 그러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διὰ Μωϋσέως)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생겨났다.”(요 1:17) 전반부는 ‘주다’라는 동사의 수동태 구문이고 후반부는 ‘이루어지다/형성되다 ->되다/생겨나다’라는 수동태적 의미의 자동사 구문이다. ‘주다’라는 동사의 행위의 원행위자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전달자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어구는 형식상으로 ‘모세를 통하여’라는 어구와 완전히 일치하지마는 그 역할을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은혜와 진리의 단순한 매개자/전달자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비로소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이다. 『개역』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

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200』은 ‘...모세로 말미암아...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준』은 ‘...모세를 통해서...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공동』은 “모세에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라고 번역했다. 『공동』의 번역문에서는 모세가 율법 수여자/제정자가 아니라 율법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를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요 1:10) 1장 17절 후반부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한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작업의 대행자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NASB, NIV, NRSV, NAB, JB(E), ZB, LB는 through him 또는 durch ihn으로 번역하여 그가 창조 작업의 대행자 역할을 하신 분임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AV는 “The world was made by him.”으로 번역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작업의 장본인임을 나타냈다.

고전 8:6은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술한다. 하나님을 만물이 기원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데는 ‘그분으로부터(ἐξ οὗ)’라고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는 τὰ πάντα ... δι’ αὐτοῦ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심을 뜻한다. AV, NASB, CEV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를 기술하는 표현을 by him으로 번역함으로써 그가 창조자이심을 나타냈다.

“만물이 그에게서(ἐξ αὐτοῦ) 나고, 그로 말미암아(δι’ αὐτοῦ) 있고, 그를 위하여(εἰς αὐτόν) 있습니다.”(롬 11:36)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δι’ αὐτοῦ라는 어구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만물과 다른 어떤 존재 사이에 중개자/매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다수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은 through him 또는 durch ihn으로 번역해 놓았다. 예외적으로 CEV는 because of him으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문을 δι’ αὐτοῦ으로 고쳐 읽어야만 한다. NEB는 Source, Guide, Goal of all that is로 번역했다. 어쨌든 하나님은 중개자/매개자일 수 없고 행위의 장본인임에 틀림없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διὰ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첫째 것은 매개자를 뜻하고 둘째 것은 장본인을 뜻한다. 여기서 ‘사도’는 동격어의 자격으로 바울을 수식하는데 두 개의 부정 형용사구와 한 개의 긍정 형용사구가 ‘사도’를 수식한다. 첫째

형용사구는 οὐκ ἀπ' ἀνθρώπων이고 둘째 형용사구는 οὐδὲ δι' ἀνθρώπου이다. 첫째 것과 '사도'를 결합시키면 '사람들에게서 기원/유래하지 아니한 사도'를 뜻하고 둘째 것과 '사도'를 결합시키면 '어떤 사람의 매개/중개를 거쳐서 되지 아니한 사도'를 뜻한다. 셋째 형용사구(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θεοῦ πατρὸς)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이 사도로 임명되는 데 매개자/중개자 역할을 하신 분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장본인이시다. 그러므로 갈 1:1의 이 διὰ-어구는 롬 11:36의 διὰ-어구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장본인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골 1:16)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다. 아들은 창조 작업의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창조 작업을 수행하신 창조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AV, NASB, NIV, CEV는 이 어구를 수동태 문장의 행위의 주어를 뜻하는 by him으로 번역했다. NRSV, NAB, NEB, JB(E), ZB, LB는 through him 또는 durch ihn으로 번역하여 그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전반부의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서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λαλεῖσθαι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히 2:3) '말하다'라는 수동태 부정사의 행위 주체는 '주님'이시고 '확증하다'라는 수동태 동사의 행위 주체는 '들은 사람들'이다. 첫 번째 나오는 행위 주체는 διὰ를 사용하여 표현했고 두 번째 나오는 행위 주체는 원래의 문법 법칙대로 ὑπό로 사용하여 표현했다. '주님'이 διὰ의 목적어이지만 그는 '말하다'라는 동사의 원 행위자이시지 전달자/전달자일 수 없다. 『공동』, 『200』, 『표준』, CEV는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AV, NIV, JB(E)는 by the Lord로 번역하여 수동태의 의미상의 주어임을 표현했다. NASB, NRSV, NAB, ZB, LB, JBD, 『개역』은 원문의 표현에 충실하게 through the Lord, durch den Herrn, '주로'라고 번역하여 주님이 '말하다'라는 행위의 전달자/매개자 역할을 하신 분으로 느껴지게 했다. NEB는 절묘하게 절충적인 방법으로 “through the lips of the Lord”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하여 NEB는 원문의 διὰ의 문자적 의미도 유지하면서 행위의 완전 주체로서의 주님의 신학적 의미도 살려내려고 했다.

“**그의 손으로**(διὰ τῶν χειρῶν αὐτοῦ) 이런 기적들이 이루어지다니?”(막 6:2) 여기에 사용된 διὰ는 어떤 일을 행하는 수단이나 방편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를 가리킨다. 그의 손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 손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행위자는 누구인가? 그 손의 주

인인가, 그의 손을 도구로 사용한 제3의 어떤 존재인가? AV, NASB, NRSV, NAB, JB(E), ZB, LB, 『개역』, 『200』은 *by his hands, durch seine Hände, through his hands*, ‘그의 손으로’라고 번역함으로써 손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나타냈지만 원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게 남겨 두었다. 이에 반해서 NIV, NEB, CEV, 『공동』, 『표준』은 ‘그(he)’를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해서 번역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그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빌 1:11) 이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어구는 ‘의의 열매’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생기는 의의 열매’가 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열매를 생기게 하는 매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생기게 하시는 장본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표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번역할 수 있다. AV는 *the fruits of righteousness which are by Jesus Christ*로 번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로 표시했으며 CEV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NASB, NIV, NRSV, NAB, ZB, LB는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die durch Jesus Christus gewirkt/geschaffen wird*라고 형용사절로 번역하면서도 매개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through*와 *durch*라는 전치사를 그대로 유지했다. JBD과 JB(E)는 번역한 *διὰ*-구는 부사구로 이해되도록 잘못 번역했다. 『개역』과 『공동』은 *διὰ*-구를 부사구로 잘못 번역했다.(행 3:16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δι’ αὐτοῦ πεμπομένοις*) 이들입니다.”(벤전 2:14) 왕은 지상에서 최고 주권자이다. 그러므로 ‘왕을 통하여 파견된 총독’은 ‘왕이 파견한 총독’을 뜻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표현은 왕이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와 총독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했다고 볼 수 없다. 예외 없이 모든 번역에서 왕이 총독을 파견한 행위의 완전한 주체로 표시되어 있다.

11)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을 수동태 구문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예언자들은 *διὰ*의 목적어로 표현된다. 여기에 *διὰ*가 사용된 것은 예언자들이 독자적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보여 주신 것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서구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에 수동태 표현을 될 수 있는 대로 능동태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διὰ*의 목적어로 표현된 예언자를 우리말 번역에서 능동태 표현의 주어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οὕτως γὰρ γέγραπται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마 2:5) NIV, CEV, JB(E)는 예언자를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서 번역했고 AV, NASB, NRSV, Amp는 수동태 문장의 행위의 주체를 뜻하는 by the prophet으로 번역했다. NAB만 예외적으로 원문의 표현대로 through the prophet으로 번역했다. 『표준』은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ὁ ῥηθεὶς διὰ Ἰ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λέγοντος).”(마 3:3) NRSV, NAB, NEB, CEV는 예언자 이사야를 주어로 하여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번역했으며 AV, NASB, Amp는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하면서 by the prophet Isaiah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행위의 주체임을 나타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NIV는 마 2:5에서는 διὰ의 목적어를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서 번역했으면서도 3:3에서는 through the prophet Isaiah로 번역했고 NAB는 마 2:5에서는 through the prophet으로 번역했으면서도 3:3에서는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동일한 번역본이라도 이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공동』과 『표준』은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번역했으며 『개역』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으로, 『200』은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으로 번역했다. 『개역』과 『200』의 번역은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의 전달자/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원 행위자로서 계시다는 원문의 본래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 4:14; 8:17; 12:17; 13:35; 21:4; 24:15; 27:9; 눅 18:31; 행 2:16; 히 2:2; 벧전 1:12도 위의 두 예문과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주요어

전치사 διὰ, διὰ 어구, διὰ의 목적어, διὰ의 기능, 성경 번역.

* 약어표

『공동』: 공동번역 성서

『개역』: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새번역』: 새번역 신약전서

『표준』: 표준 새번역 신구약전서

『200』: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신약성서

Amp: Amplified Bible

AV: Authorized Version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JBD: Die Jerusalemer Bibel in Deutch

JB(E): Jerusalem Bible(English)

LB: Luther Bibel

NAB: New American Bible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ZB: Züricher Bibel

<Abstract>

How to Translate the Prepositional Phrase?

- Focusing on διὰ (Part I)-

Retired Prof. Chang-Nack Kim
(Hanshin University)

Translating prepositional phrases into Korean raises a great deal of difficulty. That is first of all because the Korean language has no part of speech that is equivalent to the prepositions of the Indo-European languages. Greek, English and German belong to the same language family and have prepositions almost equivalent to each other, and yet English and German, too, meet difficulty in translating the Greek prepositions. This is proven by the fact that various English and German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 a specific preposition in a specific location of the New Testament into different kinds of prepositions, and further that one version translates the same preposition into various prepositions in different places, even though it is used consistently with the same meaning in the Greek text.

The preposition διὰ is used more than 665 times in the New Testament, and its meaning is not always clear in all cas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herefore, first to elucidate the original meaning of διὰ in the Greek text and then to find out ways to translate it into Korean that are semantically correct and permissible according to the usage of pure Korean language.